

문장구역의 전향적 전환법을 적용한 자막 번역

이주은

To cite this article : 이주은 (2020) 문장구역의 전향적 전환법을 적용한 자막 번역, 통번역학연구, 24:2, 139-158

① earticle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학술교육원은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② earticle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www.earticle.net

문장구역의 전향적 전환법을 적용한 자막 번역

이 주 은 *

차 례

1. 서론
2. 이론적 배경
 - 2.1. 자막의 동기화와 가독성
 - 2.2. 문장구역의 전향적 전환법과 자막 번역
3. 연구방법
4. 분석결과
 - 4.1. 대사와 자막의 동기화
 - 4.2. 효과와 자막의 동기화
 - 4.3. 자막의 내용 중복
5. 결론

<Abstract>

Lee, June. (2020). Applying Progressive Rendering to Subtitling. *Interpreting and Translation Studies* 24(2), 139-158

Progressive rendering is a critical skill for sight translation and simultaneous interpretation because it allows interpreters to overcome time constraints and cognitive overload. This paper investigates how progressive rendering can be applied to subtitle

* 한국해양대학교

<http://dx.doi.org/10.22844/its.2020.24.2.139>

translation, especially from the context of Korean to English subtitling. There are special issues to be considered in subtitling, including the most basic spacial and time constraints, as well as synchronization and readability. The current research analyzed six Netflix Korean movies rendered into English subtitles to explore the possibility of applying progressive rendering. Results are discussed in three aspects: synchronization of dialogue and subtitles, synchronization of effect and subtitles, and elimination of repeated content in subtitles. The purpose of these discussions is to examine how the sight translation method can be utilized to enhance the overall quality of subtitling while meeting the special conditions of subtitling, to achieve synchronization in various aspects, and to improve readability for the viewers.

주 제 어 : K 영화, 넷플릭스, 자막 번역, 문장 구역, 동기화

Key Words : K-Film, Netflix, subtitling, sight translation, synchronization

1. 서론

2020년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최고상인 작품상을 비롯해 네 개 부문에서 수상하면서 한국 영화(K-Film)의 오스카 시대를 열었다. 한국 드라마(K-Drama)로 시작한 한류 열풍이 한국 음악(K-Pop)을 거쳐 “이제는 한국 영화(K-Film)까지 세계 문화의 중심에 우뚝 서며 한국이 문화 콘텐츠 강국 대열에 올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오택성, 2020). 한국 문화(K-Culture)에 대한 접근성은 기술적 진보로 용이해졌고, 특히 인터넷을 통해 각종 미디어 콘텐츠를 시청할 수 있는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ver The Top Service, OTT) 덕분에 한국 문화 콘텐츠에 대한 소비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OTT 기업 중에서도, 넷플릭스(Netflix)는 190여 개국에 진출한 선두 업체로, 지난해 4분기 기준 전 세계 유료 구독자는 1억 6700만 명에 달했다(최

중원, 2020). 세계 문화 시장에서 넷플릭스를 통해 제공되는 한국 영화 및 드라마가 문화상품으로 제대로 향유되기 위해서는 콘텐츠 내용만큼이나 번역의 품질이 중요하다. 한국어를 모르는 외국인이라면 영상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번역에 절대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넘어 자국의 고유한 영상물을 세계인과 공유하고자 한다면 번역된 자막이나 더빙은 영상의 필수적인 요소가 된다. 특히, 세계 공용어로서 영어로 제공되는 콘텐츠는 전세계적인 확산에 크게 기여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넷플릭스를 통해 시청 가능한 한국 영화 중에서 영어 자막이 제공되는 것은 많지 않다.

세계무대에서 각광받고 있는 한국 영화가 세계인들로부터 더 많은 관심을 받게 되면 한국 영상물에 대한 번역 수요가 더욱 증대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비해 영상 번역 품질의 향상 방안에 대해 고찰하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자막 번역의 경우, 자막이 영상과 긴밀하게 연계되고 화면과 조화를 이루어 가독성을 향상시키는 것이 관건이다. 즉, 자막과 영상의 동기화(synchronization)가 중요한데, 특히 긴 대사의 경우 자막이 두 개 이상의 화면에 나누어 스폿팅(spottings) 될 때 동기화를 고려한 번역을 하게 되면 관객이 영상에 몰입하고 사건의 전개를 이해하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화면과 자막 간의 동기화는 특별히 두 개 이상의 장면 사이에 의도적으로 설정된 간극(극적인 휴지, dramatic pause)이 있는 경우, 더욱 민감한 사안이 된다. 극적인 휴지는 대사가 없고 음향 효과도 거의 없는 일시적인 정적상태를 일컫는다. 뒤에 이어질 내용에 대한 기대 심리를 강화하는 장치이기도 하다(tvtropes.org). 이러한 설정은 대사의 일시적인 중단을 초래하여, 특히 긴 대사의 경우 자막 생성에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다. 가독성이라는 측면에서 이어지는 대사와의 연속성을 고려해야함과 동시에 이어지는 대사에서 유발하고자 하는 효과를 감안하여 번역해야 하기 때문이다. 가령, 공포물인 경우에는 긴장 고조, 드라마인 경우에는 감정 증폭, 수사물인 경우에는 단서 제공, 그리고 코미디인 경우에는 폭소 유발이라는 효과를 염두에 두고 이러한 의도된 효과를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자막이 생성되어야 한다.

극적인 휴지를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효과를 자막에서 구현하기 위해서는 원문의 내용을 순차적으로 전달하는 방식이 편리한 경우가 많다. 그러나 한국어 대사를 영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어순 차이로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다. 이를 위한

해결책으로, 본고에서는 동시통역의 훈련기법으로 사용하는 문장구역(S-T, Sight Translation, 이하 S-T)의 전향식 전환법을 자막번역에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자 한다. S-T는 번역과 통역의 혼종(Agrifoglio, 2004)으로, 출발어 텍스트를 눈으로 읽으면서 구두로 도착어 텍스트를 전달한다. 즉, 읽고 말하는 '동시성' 때문에 전향식 기법으로 내용을 전달하는 것이 편리한데, 이는 자막 읽기와 대사 듣기의 '동시성'이라는 특성을 고려할 때 자막번역에서 접목이 가능한 측면이 있다고 본다. 다시 말해, 자막을 통한 영상 내용의 순차적인 전달을 위해 S-T의 기법을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이미 영어 자막번역이 이루어진 넷플릭스의 한국 영화를 대상으로 호흡이 긴 대사의 영어자막이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화면에 나누어 스톱핑될 경우로 한정해서 S-T의 전향식 전환법을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넷플릭스에서 제공하는 한국 영화 중에서 다양한 장르의 작품 6편을 선정했으며, ST와 TT의 대조분석을 통해 자막번역에 있어서 S-T 기법의 효용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자막의 동기화와 가독성

영상번역의 결과물이 자막이든 더빙이든, 화면과의 동기화 없이는 관객의 몰입을 기대할 수 없고 영상에 대한 이해를 보장할 수 없다. 동기화는 더빙번역에서 더 강조되곤 하는데, 등장인물의 말길, 몸짓, 입 모양과 어울리는 도착어 대사를 생성하여 생동감 넘치는 더빙 영상물을 만드는 것이 관건이다. 자막번역도 동기화가 필수적인데, 디아스-신타스와 레마엘(Díaz-Cintas & Remael, 2007)은 자막과 사운드트랙 간의 시간적 동기화가 번역 품질에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한다고 강조했다. 영상번역에서 기본적인 원칙으로 내세우는 6초 법칙이나 2줄 제약도 궁극적으로 대사와 자막의 시간적 동기화를 달성하기 위한 장치라고 볼 수 있다.

디아스-신타스(Díaz-Cintas, 2010)에 따르면 동기화는 결국 영상의 이미지 및

대사와 자막 간의 동기화를 말하는 것이다. 이는 적절한 시점(timing)에 자막을 배치하는 스파핑에 의해 실현될 수 있다. 디아스-신타스와 레마엘(Díaz-Cintas & Remael, 2007)이 자막의 타이밍과 관련해 주장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Poor timing, with subtitles that come in too early or too late, or leave the screen without following the original soundtrack are confusing, detract from enjoying a programme, and have the potential of ruining what may otherwise be an excellent linguistic transfer. Accurate timing is crucial for optimal subtitling since it reinforces the internal cohesion of the translated programme and plays the essential role of helping the viewer identify who is saying what in the programme (p.90).

즉, 자막의 타이밍이 원작의 사운드트랙과 시차가 발생하면 시청자에게 혼란을 야기하고 영상을 감상할 수 있는 즐거움을 반감시키며 번역이 아무리 잘 되었다하더라도 좋은 평가를 받기 어렵다. 반면, 적절한 타이밍은 영상의 내용에 내적 응집성을 강화하고 누구의 대사인지 구분하는 데 도움을 준다. 자막의 타이밍은 화면의 이미지와의 일치, 음향과의 일치, 대사와의 일치 등을 고려하여 설정되어야 하고, 특히 의도된 효과(유머, 긴장 고조, 감정 표현, 단서 제공 등)와의 일치가 중요한 고려 요소이다.

디아스-신타스(Díaz-Cintas, 2010: 345-346)는 자막의 가독성 향상을 위해 기본적으로 몇 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가령, 자막을 완결된 의미로 구성하되, 논리적이고 응결성을 갖춘 통사적 단위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동기화 증대를 위해 가능한 한 원문의 통사적 구조를 따르고 원작의 대사를 통해 그려지는 일련의 사건을 순서대로 전달할 것을 강조했다. 이러한 방식은 S-T의 전향식 전환법과 맥을 같이 하는데, 원문의 내용을 순차적으로 전달하는 방식에 있어서 S-T를 자막 번역에 접목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 비록 동시통역의 훈련방법으로 사용되어지곤 하지만, 통역에 국한하지 않고 원작의 대사를 자막을 통해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전략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한다면 자막의 동기화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2.2. 문장구역의 전향적 전환법과 자막 번역에의 적용

동시통역의 훈련기법으로 더 잘 알려진 S-T는 출발어로 된 문어 텍스트를 도착어 구어 텍스트로 실시간 전환하는 혼종 형태의 전환이다(Čeňková, 2015). 피히하커(Pöchhacker, 2016)는 S-T의 이러한 특성 때문에 'sight translation'보다는 'sight interpreting'이라는 용어가 더 적절하다고 지적했다. 통역사는 연사의 발화 대신 문서의 내용을 실시간으로 해독함과 동시에 도착어로 텍스트로 생성하게 된다(ibid.). 기본적으로 S-T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시각적으로 텍스트의 구획을 나누면서 핵심적인 내용을 파악하고 전환과정에서 통사적 변화가 필요한 부분을 구분해야 한다(Čeňková, 2010: 322). 또한, ST와 TT 간의 인지적 전환 과정에서 이어질 내용에 대한 예측, 일반화, 정보의 비중 판단이 이루어져야 하고, 순발력 있는 전환이 요구되며, 불필요한 반복이나 수정 없이 청중과 원활하게 소통해야 한다(ibid.).

그동안 S-T와 관련하여 다양한 주제로 연구가 이루어졌다. 리(Li, 2014)는 S-T와 관련된 선행연구의 주제들을 S-T의 과정, 결과, 교육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과정 중심의 연구들은 이론적 개념화나 경험적 연구가 다수를 이루었는데, 세부 주제로는 언어 숙달, 정보 처리, 인지적 제약 및 전략 등이 있었고, 결과 지향적인 연구들은 전문가와 비전문가의 대조, 구어적 특성, 언어간섭 현상, 오류 분석 등을 다루었으며, 교육 중심의 연구들은 교수법, 순차통역 또는 동시통역에의 적용, 다양한 설정에서의 S-T 결과 (사전 준비 여부, 시간 측정 여부 등) 등의 주제를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

과정 중심의 연구 중에서 비교적 최근에 이루어진 츠미엘과 리쥬스카(Chmiel & Lijewska, 2019)의 연구에서는 전문 통역사 24명과 통역 전공 석사 학생 15명으로 이루어진 두 집단을 대상으로 S-T를 실시하여 통사적 처리과정의 차이를 분석했다. 츠미엘과 리쥬스카는 자연스러운 도착어를 생성하기 위해 통사적 변화가 불가피한 경우가 발생한다는 전제 하에, 관형질이 포함된 비교적 복잡한 구문을 영어에서 폴란드어로 전환하도록 했다. 이러한 연구는 결국 통사적 구조가 상이한 언어일수록 전환 과정이 복잡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데, 한영 전환의 경우에도 구조를 극복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S-T를 수행할 때 원문의 내용을 가급적 순차적으로 전달

하여 정보에 대한 기억이나 처리에 대한 부담을 줄여나가는 것이 효율적이다. 이러한 전향적 발화(정혜연, 2007; 주진국, 2012; 홍설영, 2012)는 통사적 구조가 다른 언어쌍에서는 다양한 전략을 통해 실현 가능하다. 예를 들어, 긴 문장의 경우 분절(Lee, 2007; 홍설영, 2010)을 활용하거나 품사전환(홍설영, 2010)을 통해 순차적인 진행을 가능케 할 수 있다. 품사전환은 ST의 품사 일부를 TT에서 뜻이 유사한 다른 품사로 대체하여 문장을 완성하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The government emphasizes that ~"이라는 문장에서 동사를 명사화하여 "정부 정책의 초점은 ~이다"라는 식으로 변형할 수 있다(이용성 & 이주은, 2016). 이러한 전략은 주진국(2012)이 언급한 '은/는'을 이용한 주제부화에 해당되는데, 정보처리라는 측면에서 이해, 기억, 발화에 인지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방식이다(강지혜, 2004).

이용성과 이주은(2016)이 언급한 또 다른 전략으로 초점전이가 있는데, 순차적으로 정보를 전함에 따라 문장의 구나 종속절이 주절로 바뀌는 경우이다. 예를 들어, "The conference was held in Seoul, with representatives in trade all over the world."를 TT에서 "서울에서 열린 회의에 여러 나라 무역대표단이 참석했다"로 전환할 경우, ST의 콤마 이하의 전치사구가 TT에서는 주절이 되었다. 이로 인해 ST에서는 "서울에서 회의가 개최되었다"는 주된 정보가 TT에서는 "여러 나라 무역대표단이 참석했다"는 것으로 대체되어 초점에 변화가 일어났다. 엄밀하게 말해, 이런 경우 전환 과정에서 정보의 무게 중심이 달라졌다고 할 수 있으나, 전체적인 의미는 유사하여 시간적 제약 속에서 신속하게 전환이 이루어져야 하는 상황에서는 하나의 대안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위에서 살펴본 전략들은 시간적 제약 속에서 '읽기'와 '말하기'라는 두 인지 작용이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는 "동시성"을 고려할 때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자막으로 번역된 영상을 감상하는 경우에도 유사한 상황이 발생한다. 즉, 제한된 시간에 자막 '읽기'와 영상의 사운드트랙 '듣기'가 실시간으로 이루어져 "동시성"이라는 제약 조건이 성립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덧붙여 빠른 화면 전환 속에서 영상 자체를 감상해야 하는 시간까지 감안하면, S-T의 전향적 전환법을 활용하여 화면과의 동기화를 개선하는 것이 영상번역의 가독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영어 자막으로 번역된 한국 영화 6편을 분석하여 S-T 전환법을 접목할 수 있는 가능성을 고찰하고자 한다.

3. 연구방법

한류의 영향으로 한국 영화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높아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넷플릭스에서 제공하는 많은 한국 영화들이 영어 자막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영화 랭킹 사이트인 itechguides, Ranker, Cinemaholic에서 제공하는 한국 영화 10대 인기작의 목록을 살펴보면, 두 사이트 이상에서 공통으로 제시하는 영화가 〈부산행〉(Train to Busan, 2016), 〈기억의 밤〉(Forgotten, 2017), 〈밀정〉(The Age of Shadows, 2017), 〈판도라〉(Pandora, 2016), 〈루시드 드림〉(Lucid Dream, 2017)인데, 5편 모두 넷플릭스에서 스트리밍되거나 영어 자막이 있는 영화는 판도라뿐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분석 대상 텍스트는 넷플릭스를 통해 감상할 수 있는 한국 영화 중에서 영어 자막이 제공되는 것으로 국한했다. 넷플릭스의 "Korean Movies" 메뉴는 한국 영화를 다양한 장르로 분류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6개의 장르(액션, 로맨스, 드라마, 스릴러, 코미디, 공상과학)에서 영화 한 편씩 선택하여 총 6편의 영화 자막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이를 통해 다양한 장르의 영화에서 S-T 전향적 전환법이 가지는 효용성을 살펴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아래는 최종적으로 선정한 영화 목록이다.

[표 1] 분석 대상 영화

번호	장르	한국어 제목	영어 제목	연도
1	액션	범죄 도시	The Outlaws	2017
2	로맨스	가장 보통의 연애	Crazy Romance	2019
3	드라마	상류사회	High Society	2018
4	스릴러	판도라	Pandora	2016
5	코미디	형	My Annoying Brother	2016
6	공상과학	당신, 거기 있어줄래요	Will You Be There	2016

위 영화 6편의 영어 자막 중에서 S-T의 관점에서 논의의 대상이 되는 자막만 분석하며, 긴 대사 중에서 두 개 이상의 화면에 나누어 제시되는 자막으로 국한한다. 짧은 자막의 경우에는 한 화면에 제시되기 때문에 화면과 자막 간의 동기화에 문제가 없고, 긴 자막의 경우에도 동일한 화면에 나타난다면 화면 전환으로 인한 가독성 저하를 우려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사가 길어져 화면 전

환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자막이 연속적으로 배치되어야 되는 경우로 논의를 제한한다.

넷플릭스에서도 자막의 가독성을 위해 번역 시 일정한 원칙을 제시한다. 넷플릭스 번역 지침(English Template Timed Text Style Guide)에 따르면, 자막은 최대 두 줄을 원칙으로 하되, 줄 바꾸기 할 때 문장을 임의로 나누지 않도록 문장부호 뒤 또는 접속사나 전치사의 앞 등으로 한정한다. 특히, 자막의 연속적인 배치(continuity)에 관해서는 말줄임표나 대시를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대사 사이에 휴지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만 선행하는 자막 끝에 말줄임표를 쓰도록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휴지가 없는 연속적인 긴 대사와 휴지가 있는 단절된 긴 대사에 대한 영어 자막 모두 살펴보았다.

분석 방법은 S-T와 관련하여 논의의 대상이 되는 한국 대사와 영어 자막의 전사 자료를 토대로 한 대조 분석이다. 먼저, 전사된 데이터를 크게 세 항목으로 분류했다 - 대사와 자막의 동기화, 효과와 자막의 동기화, 자막의 내용 중복이다. 이에 대해 각각 동기화와 비동기화로 구분하여 분석 결과를 논하였다. 비동기화가 이루어진 사례에 대해서는 S-T의 전향적 전환법을 적용했을 때의 대안을 제시했다. 다음 장에서는 S-T의 전향적 전환법의 적용 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 자막 분석 결과를 논하겠다.

4. 분석결과

본 장에서는 자막 번역 시 S-T의 전향적 전환법의 효용성에 대해 알아보고자, 자막 분석 결과를 세 항목으로 나누어 고찰하고자 한다. 먼저, 대사와 자막의 동기화에서는 대사와 자막의 관계를 동기화 또는 비동기화로 크게 구분하고, 비동기화의 경우에는 S-T 기법을 적용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지 논하겠다. 효과와 자막의 동기화에서는 영상이 의도하는 다양한 효과 중 유머와 긴장 고조에 해당하는 자막의 비동기화 사례를 살펴보겠다. 마지막으로 자막에서 내용상 중복이 일어날 때 이를 배제할 수 있는 방법으로 S-T 기법의 활용 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4.1. 대사와 자막의 동기화

자막 번역을 할 때 번역사의 입장에서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것이 대사일 것이다. 시나리오를 받고 그것을 바탕으로 번역을 할 때 더욱 그럴 수 있다. 자막 번역이 결국 ST의 대사를 TL의 글로 옮기는 작업이기 때문이다. 영상 번역에서는 이런 전환 과정이 많은 제약 속에서 일어난다. 6초의 법칙 같은 시간적 제약과 2줄의 법칙 같은 공간적 제약이 대표적이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 대사의 일부를 부득이하게 축소하거나 생략할 수밖에 없다. 게다가 대사의 정보를 순차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SL과 TL의 어순 차이로 가능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S-T의 전향적 전환법을 적용하여 대사와의 동기화를 이룰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서는 이러한 S-T 기법을 영상번역에 접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자막 분석 결과, 대부분의 경우 영어 자막이 대사의 내용을 순차적으로 전달하는 방식으로 번역되었다. 아래는 High Society와 Pandora에서 발췌한 사례이다.

(동기화) High Society

ST: (부관장) 관장님, 재개관전은 미술관 비전을 제시하는 자리이기도 하구

TT: Director, the reopening exhibit is about showing our center's direction, and...

ST: (관장) 그러니까 비전을 왜 부관장이 제시하냐구

TT: So why is the vice director having issues,

ST: (관장) 관장인 내가 가만히 있는데

TT: when I find the direction fine?

(동기화) Pandora

ST: (총리) 그렇게 되면 대구, 대전! 그리고 서울까지

TT: Then, Daegu, Daejeon and Seoul

ST: 연쇄적으로 다 무너지게 됩니다.

TT: will panic in a row.

위 예에서 보듯이, 청중의 입장에서 ST의 대사를 들으면서 동시에 TT 자막을

읽음으로써 내용상의 일치가 이루어진다. 특히, 두 번째 예시처럼 ST의 대사인 ‘대구, 대전, 서울’이 영어 자막에서 음차되어 번역되는 경우 자막과 화면의 소리와 동기화가 이루어져 청중의 몰입에 기여할 수 있다. 그 외에도 청중이 영상에 등장하는 특정 대상에 주목해야 하는 경우, 자막이 특정 장면과 일치하도록 번역하면 내용이 효과적으로 전달될 것이다. 이와 같이, 자막과 대사와의 일치, 소리와 일치, 화면과의 일치가 고려될 때 자막의 가독성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이상적인 동기화가 항상 가능한 것은 아니다. 영상번역의 제약으로 완벽한 동기화를 이루는 데 어려움이 있어, 때로는 자막 내용의 일부를 다음 자막으로 재배치하든지 자연스러운 연결을 위해 자막 문구에 적절한 말을 삽입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아래 사례를 통해 이러한 경우를 확인할 수 있다.

(비동기화, 자막 내용 재배치) High Society

ST: (부관장) 갑자기 일방적으로 계약 취소하고

TT: They suddenly backed out of the contract,

ST: 국내 작가들 기회를 박탈한 거잖아

TT: and they took away opportunities

ST: 한물간 외국 작가 모셔오느라구

TT: from local artists
 just to invite a foreign one.

(비동기화, 자막 내용 추가) Crazy Romance

ST: (재혼) 다들

TT: You know

ST: 마음의 상처는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하잖아

TT: everyone thinks your suffering
 is a matter of mindset.

첫째 예에서는, 두 번째 ST의 ‘국내 작가들’이 세 번째 TT의 local artists로 재배치되었다. 이런 경우, S-T의 전향적 전환법을 적용하면 두 번째 TT를 ‘Local artists lost their opportunity’ 또는 ‘Local artists lost a (good) opportunity’ 정도로 바꿀 수 있을 것이다. 두번째 예에서는 번역사가 ST 주어인 ‘다들’을 자막에서 ‘everyone’으로 단독으로 제시하는 것을 꺼린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You know’라는 담화 표지어를 삽입하여 두 번째 자막에서 한 문장으로 자막이 전달되도록 했다.

비동기화는 위의 경우처럼 공간적 제약이나 문장 구성 성분의 분리를 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채택할 수 있다. 그밖에, 기본적으로 SL과 TL의 어순 차이로 비동기화가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S-T의 전향적 전환법으로 어느 정도 수정이 가능한 것도 있고, 수정하면 오히려 가독성이 떨어지거나 문장이 어색해지는 경우도 있다. 먼저, S-T 적용이 가능한 경우부터 살펴보겠다.

(비동기화, S-T 적용 가능) My Annoying Brother

ST: (아나운서) 원래 리우 올림픽에서 메달을 가져올 것이라고

TT: He was originally expected to win

ST: 기대했던 대단한 유망주였는데

TT: a gold medal [medal] here in Rio.

ST: 패럴림픽에서 이렇게

TT: Who would have thought

ST: 금메달을 목에 걸 것이라고 누가 예상을 했겠습니까

TT: he would win the medal
 in the Paralympics?

(비동기화, S-T 적용 가능) Will you be there

ST: (혜원) 홍수 때문에

TT: If you don't get on this flight,

ST: 지금 못 타면 보름이나 묶인다니까

TT: you'll have to wait two weeks
 for the next one due to the flood!

첫 번째 예에서는 ST의 '리우', '유망주', '패럴림픽', '금메달' 같은 핵심 어휘를 S-T 전환법을 이용하여 'He was expected to win at Rio / as a gold medal favorite. / But here at the Paralympics / we are witnessing a surprising gold' 정도로 수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다만, '기대했던'이라는 동사를 두 번째 자막에 포함하게 되면 의미 전달이 명확해지지 않을 수 있어 첫 번째 자막에 포함시켰으며, 완결된 문장을 생성하기 위해 주어를 제시했다. 두 번째 예에서는 S-T 전환법을 적용하여 '홍수'를 전치시킬 수 있다. 'There's a flood coming. / If you miss the flight
 you'll be stuck for two weeks.'로 수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듯 모든 요소를 완벽하게 동기화시키는 것이 가능하지 않더라도, 핵심어라도 ST 대사와 동기화시킬 수 있다면 한국어를 조금이라도 아는 외국인 입장에서는 영상을 감상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영어를 어

는 정도 이해하는 한국 시청자가 영어로 된 영화를 보면서 한국어 자막을 읽을 때, 동기화가 되면 물입에 도움이 되듯이, 한국 영화를 감상하는 외국인의 입장도 이와 유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렇다고 S-T 전환법이 모든 경우에 용이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아래 예를 보자.

(비동기화, S-T 적용 어려움) High Society

ST: (아나운서) 국회 의사당 앞에서 분신을 시도했던 정신우 씨가

TT: Mr. Jeong Shin-woo,
 who set himself on fire

ST: 오늘 새벽 5시경 사망했다는 소식입니다

TT: in front of the National Assembly Building
 died
around 5 a.m. today.

위 사례는 영화 내 뉴스 보도 장면인데, 정보 집약적인 내용이 빠른 속도로 전달되는 상황에서 해당 자막을 대사와 무리하게 대응시키는 것보다 가독성을 고려하여 자막을 구성하는 것이 더 적절할 수가 있다. 위 예에서 ‘국회 의사당 앞’이라는 정보를 첫 번째 자막에 포함시키면 자막이 너무 길어져 가독성이 떨어지므로 두 번째 자막으로 재배치했다. 이와 같이, S-T의 전향적 전환법이 유용하다 하더라도 무리하게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다만 자막의 가독성 향상이라는 측면에서 필요 시 채택할 수 있는 전략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

4.2. 효과와 자막의 동기화

영화의 효과를 자막에서 재현하는 것이 쉬운 것만은 아니다. 언어적 및 문화적 장벽을 고려해야 하고, 자막번역의 시공간적 특수성을 감안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문에서 의도한 효과를 TT에서 최대한 재현하는 것이 번역사의 임무일 것이다. 아래에서는 다양한 효과 중에서도 유머의 사례 두 개를 살펴 보겠다. ST와 TT 간에 문화적 간극이 클 경우에는 상당한 개작이 필요할 수도 있지만, 아래 사례는 비교적 개작 없이 번역이 가능하다.

(비동기화, 유머) The Outlaws

ST: (마석도) 아직 근무 시간이야, 술 안 먹어

TT: I can't drink. I'm on the clock.

ST: (마석도) 근무 시간이

TT: It's almost time

ST: 끝났는데 얼추

TT: to stop working

이 예시는 경찰인 마석도가 황 사장의 호출을 받고 근무 시간에 림살롱을 방문하는 장면인데, 조사가 끝나 철수하려고 하자 림살롱 지배인이 아가씨들을 방으로 들여보내며 마석도의 발목을 잡는다. 마석도는 술을 권하는 황 사장에게는 근무 시간이라 안 된다고 거절하지만, 지배인이 데리고 온 아가씨들을 보자 마음이 흔들린다. 자신의 말을 반복하며 '근무 시간이... 끝났는데 얼추'라고 얼버무리며 웃음을 자아낸다. 이 장면에서 마석도의 대사는 '근무 시간'이라는 말로 시작하는데, 이를 자막번역에서도 On-duty hours... are almost over (anyway)'와 같은 전향적 방식으로 번역한다면 원문에서 의도한 유머 효과를 더 잘 살릴 수 있을 것이다. 본고의 분석에서는 영화의 효과와 관련된 자막의 동기화 사례가 많지 않았으나, 더 많은 영화를 분석 대상으로 삼아 향후 분석범위를 확장한다면 유관한 사례를 더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특히, 극적인 순간에 설정된 효과일수록 S-T 전향적 전환법이 그 효과를 재현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4.3. 자막의 내용 중복

위 두 절에서는 자막 번역에서 S-T 전향적 전환법을 적용하여 ST 대사 및 효과와의 동기화를 실현하는 방법에 대해 논하였다. 이 절에서는 동기화 외에도 S-T 기법이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자막 번역을 하다 보면 가독성을 위해 완결된 의미를 전달하고자 내용을 중복해서 제시하는 경우가 있다. 아래 예를 보자.

(비동기화, 중복) Crazy Romance

ST: (재훈) 처음부터 너, 어

TT: So that was why, right?

ST: 그래서 나한테 그렇게 까칠했어

TT: That's why you've been
 so aggressive to me from

the start.
 ST: 내가 사수라서
 TT: Because I'm your superior.

위 사례에서는 첫째 둘째 자막에서 'that was why'와 'that's why'가 중복된다. ST에서는 '그래서'로 한번만 제시되었다. 이는 자막의 가독성을 향상하는 차원에서 선택한 전략으로 보인다. 그런데 여기에 S-T 전향적 전환법을 사용하면 'Right from the start, (you know)' 또는 'From the moment we met, (you know)' 정도로 처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내용 중복 없이 ST 내용을 비교적 순차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비동기화, 중복) Pandora
 ST: (연주) 방법이
 TT: Is that...
 ST: 참말로 그것밖에 없나
 TT: Is that the only way?

(비동기화, 중복) Pandora
 ST: (평설) 출입문을
 TT: Let's block
 ST: 봉쇄합니다.
 TT: Let's block the entrance.

위 예에서도 'Is that'과 'Let's block'이 자막에서 중복되었다. 이를 S-T 기법을 적용하여 수정하면 'Is that plan... the only one feasible?' 또는 'Is that option... all we have available' 정도로 바꿀 수 있고, 아래 예는 'The entrance... will (now) be blocked' 등으로 전환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그런데 때로는 내용 중복을 통해 자막의 가독성을 향상할 수 있어, 반드시 배제되어야 할 전략으로 치부하는 것은 조심스럽다. 아래 예를 보자.

(동기화, 중복) High Society
 ST: (수연) 그런데 나는
 TT: But I...,
 ST: 자기가 때를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TT: I prefer a man who makes a chance,

ST: 때를 만드는 사람이길 바래

TT: not a man who waits for one.

첫째 둘째 자막에서 'I'가 중복되어 제시된다. 이것은 아마도 두 번째 자막은 완결된 문장으로 전달하여 자막의 가독성 제고에 기여하고자 내린 결정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런 경우, 첫 자막을 'Nevertheless...' 정도로 처리하고 ST의 '나는'을 두 번째 자막으로 재배치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다.

자막 번역을 하는 데 있어서 항상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번역사의 고심 끝에 다양한 방식으로 TT가 생성될 수 있을 것이다. S-T 전환법이 모든 자막에 적용 가능한 것은 아니며 또 반드시 적용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그동안 통역의 영역으로 간주되어 온 문장구역 전환 기법을 자막 번역 시 활용할 수 있는 전략으로 제시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들리는 대사와 읽는 자막 간에 일치도가 높으면 전반적으로 관객이 영상에 몰입하는 것과 감상의 즐거움을 배가하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한다.

5. 결론

본고에서는 S-T의 전향적 전환법의 효용성을 자막 번역이라는 관점에서 살펴 보았다. 전통적으로 동시통역의 훈련법으로 활용되어 온 문장구역을 영상 번역에서의 동기화 실현 및 가독성 제고라는 차원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했다. 구체적으로는 대사와의 동기화, 효과와의 동기화, 자막의 내용 중복 해결이라는 측면에서 사례를 통해 S-T 전환법의 적용 가능성을 확인했다. 첫째, 대사와의 동기화에서는 S-T 전환법을 활용하여 핵심어 중심으로 자막을 원문의 대사와 동기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살펴보았다. 단, 뉴스 보도처럼 원문의 내용이 정보 집약적인 경우 S-T를 무리하게 적용하는 것보다 도착어의 통사적 구조에 맞추어 자연스럽게 번역하는 것이 나은 경우도 함께 살펴보았다. 둘째, 효과와 자막의 동기화에서는 유머 효과의 사례를 제시했는데, S-T 전환법을 적용하여 유모 효과를 증대할 수 있는 가능성을 언급했다. 셋째, 자막 내용 중복에서는 S-T 기법을 접

목하여 자막에서 불필요한 중복을 피하고 내용을 순차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다.

이상과 같이 본고에서는 자막 번역 시 S-T 전환 기법의 효용성을 살펴보았는데, S-T 전환법이 모든 자막 번역의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본고의 사례에서도 보았듯이 SL과 TL의 어순 차이로 순차적 전환 과정에서 한계에 직면해 타협을 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즉, 자막의 일부를 다음 화면으로 재배치하거나 자막에 내용 일부를 추가하여 자연스러운 흐름을 만들어내는 경우도 확인했다. 게다가 자막이 대사나 이미지와 일치를 이루는 것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장면이 아니거나 특정 효과를 전제로 하는 극적인 장면이 아니라면 대사와 자막의 완전한 동기화가 민감한 사안이 아닐 수 있다. 만약 한국 영화를 감상하는 외국인이 한국어를 전혀 모르는 상황이라면 동기화에 대한 기대치가 낮고 그에 대한 중요도도 높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한국 문화에 대한 세계적 관심이 전반적으로 고조되는 상황이고, 한류 열풍으로 외국인 중에서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이들도 증가 추세이며, 넷플릭스 등 OTT를 통해 한국 영화가 지속적으로 소개되는 현실을 감안할 때, 영상번역의 품질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S-T 전향적 전환법의 유용성을 살펴보는 것이 가치있는 일이라고 본다. 넷플릭스에서조차 여전히 많은 한국 영화가 미번역된 상태로 남아있는 가운데, 소통의 필수 장치이자 영상의 마지막 요소로서의 자막이 관객의 기대에 부합하는 높은 품질을 실현할 수 있도록 다방면의 노력이 필요한 때이다. 이를 위해 영상번역에 대한 연구가 다각도로 이루어져 실무적으로 활용 가능한 대안들이 지속적으로 제시되기를 바란다.

참고문헌

- 강지혜 (2004). 통역의 이해. 서울: 한국문화사.
- 이용성, 이주은 (2016). 통·번역 이야기. 서울: 동인.
- 정혜연 (2007). 연상작용을 통한 문장구역 - 통역교육에의 시사점. 통번역학연구. 10(2), 105-126.
- 주진국 (2012). 문장구역 수행 방법론상의 특징에 관한 소고. 통번역교육연구. 10(1), 211-227.
- 홍설영 (2010). Paraphrasing as an anti-interference technique in sight translation: An action research-based experiment. 통번역학연구. 13(2), 141-170.
- 홍설영 (2012). 영-한 문장구역 수행의 어려움 - 학습자의 수행 및 회상 데이터를 결합한 예비조사. 통번역학연구. 16(1), 241-269.
- Agrifoglio, M. (2004). Sight translation and interpreting: A comparative analysis of constraints and failures. *Interpreting*, 6(1), 43-67.
- Čeňková, I. (2010). Sight translation: Prima vista. In Gambier, Y. & Doorslaer, L. (Eds.). *Handbook of translation studies* (vol. 1). Amsterdam: John Benjamins. 320-323.
- Čeňková, I. (2015). Sight interpreting/translation. In Pöchhacker, F. (Ed.). *Routledge Encyclopedia of Interpreting Studies*. London: Routledge. 374-375.
- Chmiel, A., & Lijewska, A. (2019). Syntactic processing in sight translation by professional and trainee interpreters: Professionals are more time-efficient while trainees view the source text less. *Target*, 31(3), 378-397.
- Cintas, J. D., & Remael, A. (2007). *Audiovisual translation: Subtitling*. Manchester: St. Jerome.
- Lee, S. (2007). The use of segmentation strategy in sight translation.

국제회의 통역과 번역. 9(1), 153-172.

Li, X. (2014). Sight translation as a topic in interpreting research: Progress, problems, and prospects. *Across Languages and Cultures*, 15(1), 67-89.

Pöchhacker, F. (2016). *Introducing Interpreting Studies* (2nd Ed.). London: Routledge.

Remael, A. (2010). Audiovisual translation. In Gambier, Y. & Doorslaer, L. (Eds.). *Handbook of translation studies* (vol. 1). Amsterdam: John Benjamins. 12-17.

[신문 기사]

오택성 (2020. 2. 11). 영화 '기생충' 오스카 수상...K-POP이 K-FILM까지 세계 중심 '우뚛'. VOA. <https://www.voakorea.com/korea/korea-life/parasite-oscar>

최종원 (2020. 2. 11). 넷플릭스 시대의 문화 산업, 아우라의 종말을 고하다. Wiki Korea. <http://www.wikileaks-kr.org/news/articleView.html?idxno=78083>

[웹사이트]

tvtropes.org <https://tvtropes.org/pmwiki/about.php>

[Netflix 영상자료]

김홍백, 장원석(제작), & 강윤성(감독). (2017). 범죄 도시. (쥬홍필름, 비에이엔 터테인먼트).

이유진(제작), & 김한결(감독). (2019). 가장 보통의 연애. 영화사 집.

김철용(제작), & 변혁(감독). (2018). 상류 사회. 하이브미디어코프.

백경숙, 김철용(제작), & 박정우(감독). (2018). 판도라. CAC 엔터테인먼트시네마파크.

최낙권(제작), & 권수경(감독). (2016). 형. 굿초이스컷픽처스.

민진수, 민규동, 박선희(제작), & 홍지영(감독). (2016). 당신, 거기 있어줄래요. (주수필름).

이주은

한국해양대학교 교양교육원 강사

전공언어: 영어

관심분야: 영상번역, 통번역 교육

E-mail: juneleetrans@gmail.com